

‘초록의 힘’...‘치유·희망’ 행복메시지

‘더 그리너’展...7월19일까지 2023 주안미술관 기획전

자연속 풍경과 교감...예술로 스며든 푸르름의 향연 선사

‘녹색(Green)’을 주제로 자연친화적 모습을 담아낸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주안미술관은 오는 7월19일까지 2023 주안미술관 기획전 ‘더 그리너(The Greener)’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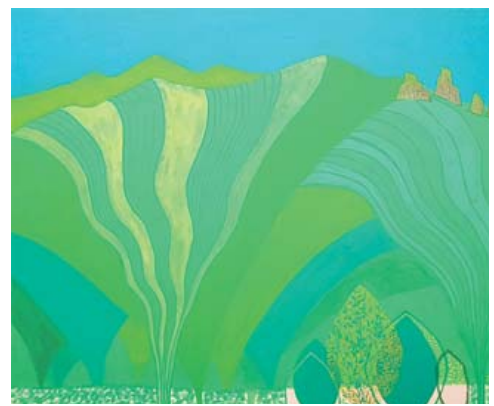
김계진, 윤연우, 이경옥, 이유빈, 정소영 5인 작가가 ‘녹색(Green)’이라는 푸른 계열의 색깔을 바탕으로 작업해 참여한 전시다.

김계진 작가는 ‘행복’에 대해 고찰한다. 작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예쁜 딸이 태어난 날과 오래 전 선물 받은 카라꽃이라 이야기한다. 카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환경과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진정한 행복을 상상할 수 있음을 말한다.

윤연우 작가는 전통 직조 방식인 태피스트리 기법과 드로잉 작업을 통해 ‘숲 속의 나’를 드러낸다. 숲의 풍경보다는 내 안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며, 이는 숲 속을 거니는 나를 포함한

주변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숲과 하늘, 바다와 같은 자연의 모습 등 저마다의 깊이 있는 푸름을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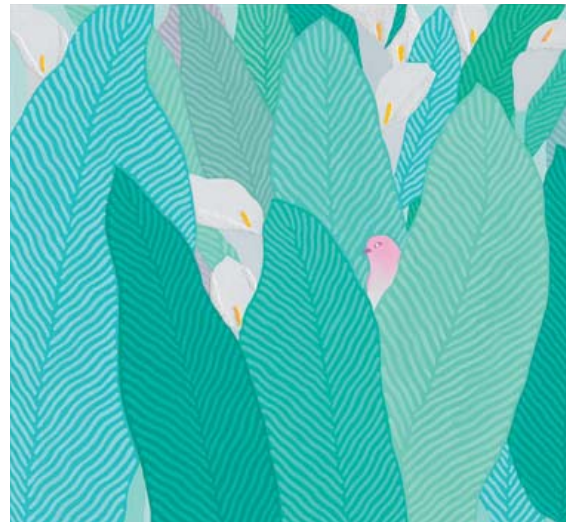
이경옥 작가는 변영의 여신 ‘페르세포네’의 지상으로의 귀환을 녹색을 띤 촉박이 넘치는 봄으로 표현한다. 지성을 나타내는 하늘의 파란색과 땅의 노랑이 섞인 신비의 녹색이 온 세



이경옥작 'signal'

상을 물들인다. 이는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과 새싹들의 생명을 알리는 것이다. 작가는 삶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통해 자연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유빈 작가는 작품 속에 일상에서 채집한 풍경 이미지와 사유 공간 ‘섬’을 등장시킨다. 이는 작가 자신과 생활하는 공간, 감정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섬은 심리적으로 타인과 나를 경계 짓는 공간, 안정감을 느낄



김계진작 'innocence'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의미한다. 어떤 공간을 벗어났을 때의 감정, 그리고 만나는 공간에서의 감정을 푸른 계열의 색채로 편안하게 표현했다.

정소영 작가는 나뭇잎 사이사이 작은 틈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반짝거림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감정을 실어낸다. 잘나에 포착된 나무의 인상은 현실과 기억 사이, 한 시점에서 시작해 수많은 반복되는 기계적 움직임의 통해 특정한 인상으로 거듭나며 변형된 현재의 새로운 인상으로 나타난다.

송진주 주안미술관 큐레이터는 “작가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푸른색’ 예술작업은 현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연풍경의 일환이다. 예술에 의한 자연을 통해 보는 이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라며 “녹색의 색감을 지닌 5명 작가들의 작품들로 자연의 색깔에 스며들어 한층 더 질어지는 푸른색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제29회 광주미술상 수상자. 왼쪽부터 강지수, 오건택 이사장, 정정해(본상), 서영기.

제29회 광주미술상에 정정하 작가

강지수·서영기 작가 ‘특별상’

제29회 광주미술상은 정정하 작가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는 올해 광주미술상 수상자에 정정하(43)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상은 강지수(29), 서영기(39) 작가에게 주어졌다.

이번 수상자 정정하는 광주 출생으로 조선대 미술학부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흡수’와 ‘반사’라는 주제로 총 4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제2회 하정용 청년작가 초대전 ‘빛2021’에 선정됐으며, 2020년 조선대 주최 제2회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 작가는 색채를 매개로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에너지를 기록하는 작업

을 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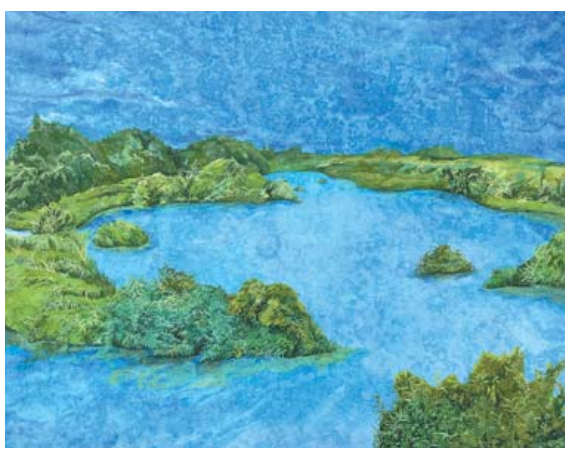
작가는 페인트 매장에 일하면서 접한 페인트, 레진, 건축용 자재 등 매체를 사용해 색을 테마로 한 추상작업과 설치작업을 선보여왔다. 자신이 살아 가면서 느낀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수집과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명명하며 페인트가게를 찾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색채로 기념한다.

정정하 작가는 “지역의 여러 원로, 선배 미술인들이 주는 상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 광주미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가로 거듭 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과 개인전 전시공간 제공, 홍보 및 작가와의 대화 자리 등이 제공된다.

/최명진기자



이유빈작 '숨쉬는 섬'

피아니스트 동수정,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 첼리스트 윤소희

‘쇼스타코비치·아렌스키’ 피아노 트리오 무대

오늘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지역 중견 연주자들의 피아노 트리오 무대가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동수정,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 첼리스트 윤소희 세 명의 연주자가 1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같이 공부하고 독일 유학까지 함께했던 이들은 지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전국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과 아렌스키의 작품 피아노 트리오 제1번을 선사한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트리오 2번은 그의 친구이자 평론가였던 이반 솔레르틴스키의 죽음을 애도하며 바친 추모곡으로 전쟁과 죽음, 슬픔과 절망이 깃든 음악이다. 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쇼스타코비치 실내악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아렌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제1번 또한 첼리스트



동수정

김도연

윤소희

다비도프를 추모하며 헌정된 곡이다. 아렌스키가 남긴 250여곡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서정적 선율이 돋보인다. 대곡으로서의 치밀한 구성과 함께 피아노의 기교적인 악구와 리듬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약 70분 동안 진행된다.

/최명진기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단원 모집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이 2023 청소년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꿈과 재능이 있고 용모가 단정한 광주 거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접수는 19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자유곡 악보 1부를 이메일(02911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24일 오전 11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실시하며 실기전형(자유곡 1곡)과 면접전형으로 이뤄진다.

최종 합격자는 29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7월4일부터 광주시



립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활동하며 정기공연 수당 및 활동지원금(장학금), 단복, 음악 캠프 및 각종 워크숍 지원 등이 주어진다.

정기 연습 일정은 학기 중 매주 화·목(오후 6-9시), 방학 중 매주 월·금(오전10시-오후1시)이다. 정기공연 및 외부 공연 시 연음이 추가될 수 있다.

/최명진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740RY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 구함

캠코더, 카메라 남·여 수리기사 모집 (급여 상담 후 결정)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DVD 변환전문업체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